

토마스 하디의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콜로니얼의 서벌턴 : 『더버빌가(家)의 테스』와 『비운의 주드』를 중심으로*

사공 철
(경운대학교 / 교수)

Sagong, Chaul. Postcolonial Subaltern in Thomas Hardy's Novels : Focused on *Tess of the D'Urbervilles* and *Jude the Obscure*.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76 (2020): 73-97.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Postcolonial Subaltern in Hardy's two novels through postcolonial literary theory by Homi Bhabha and Gayatri Spivak, two of the most eminent postcolonial scholars. Firstly, this paper is to turn out the aspects of subaltern focusing on Tess's Femininity in *Tess of the D'Urbervilles*. Tess is the Heroine for "the sexual reflection of woman" through the subaltern to recover the value of femininity. Secondly, it is to turn out the aspects of subaltern focusing on Jude's Masculinity in *Jude the Obscure*. Jude is the Hero for "the sexual reflection of man" through the subaltern to recover the value of masculinity. The important point of postcolonial subaltern on gender's discourse is to overcome dichotomous thinking and to achieve ambivalent equality in the modern society. Therefore Hardy is a true humanist novelist through constant exploration about 'Postcolonial Subaltern' not as the oppressed subject, but as the esteemed subjects in above two novels. (Kyungwoon University)

Key words: Thomas Hardy, *Tess of the D'Urbervilles*, *Jude the Obscure*, Postcolonial, Subaltern

I. 서론

현재까지 하디(Hardy, Thomas)의 소설을 '포스트콜로니얼의 서벌턴'이라는 문제의식에 의해 살펴 본 기존의 연구는 희소하다. 필자는 그럼에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87009).

불구하고 하디 소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포스트 콜로니얼’(Postcolonial) 연구자들¹이 주장하는 ‘서벌턴’(Subaltern)² 이론을 하디의 두 소설 『더버빌가(家)의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와 『비운의 주드』(*Jude the Obscure*)에 적용해 보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적인 논지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논의가 왜 하디 소설에 주된 문제로 부각되는 가는 당대의 시대적 변화와 환경적 상황에 처한 그의 삶과 문학관을 고려해 보면 알 수 있다. 하디가 살았던 빅토리아 시대(Victorian Era)는 다윈(Darwin, Charles)이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1859)을 발표한 이래 『진화론』(*Darwinism*)이 사회 전반의 여러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종래의 종교관과 인간관이 크게 변하게 되던 시대이다. 특히 1830년대와 1840년대 후반에 일어난 뉴먼(Newman, John Henry)의 옥스퍼드 운동(Oxford Movement)은 영국 국교의 전통적인 가치관을 부활시키며 성 담론에 관한 이데올로기를 더욱 보수적으로 이끌어 갔다. 여성의 성에 대해서는 순결한 여인과 타락한 여인으로 양분화된 시각으로 보는 것이었

1 하디의 소설을 포스트콜로니얼(본 논문에서는 이하 ‘탈식민’이라고 명하고 분석한다.)의 시각으로 연구하려는 연구자의 동향으로 첫째, 미첼(Michell, Juliet)의 견해인데 그녀는 여성의 정체성이 문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으며 섹슈얼리티가 빅토리아조 작품 들 속에 녹아들어 어떻게 작용하고 형성되는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377-46). 둘째, 부멜라(Boumelha, Penny)의 견해로 그녀는 성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의 결혼관과 연관시켜 빅토리아조 여성의 억압구조, 계급과 젠더의 상호관계를 인식하여 하디의 여성관과 성차별에 관한 사회문제를 제기했다(4-8). 셋째, 잉거햄(Ingham, Patricia)의 ‘여성다운 여성과 타락한 여성에 대한 기호가 어떻게 사회화 되는 가’에 대한 기호론적 접근 방식이다(26).

2 ‘서벌턴’이란 탈식민 담론가인 바바(Bhabha, Homi K)와 스피박(Spivak, Gayatri C)이 “양가적”(ambivalent) “하위주체”(subaltern subject)를 설명하는데서 사용된 용어로서 기존의 인식과 체계를 ‘해체’하고 중심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되어 ‘변두리’에서 “억압받는 주체”(Spivak 1994, 81)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외부세계나 현실 등에 의지적으로 인식하며 주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의존적 주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하 ‘하위주체’로 명하고 분석한다.

다. 따라서 여성의 성적 일탈은 부도덕한 행위로 간주되어 여성은 사회적 인 위치나 신체적인 면에서 남성에 비해 더욱 열등한 존재로 치부되면서 억압받는 하위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 문화에서 여성은 성적 유희의 대상이 되어 “여성의 몸이 이상화 되거나 타락화 된 양극의 알레고리로 재현되며, 언제나 여성의 몸은 연인, 사회의 법들, 혹은 억압된 과거가 그 위에 각인되는 주체처럼 취급 된다”(Bronfen 69, 장정희 146-147 재인용). 최근에는 남성에 대해서는 여성성에 대한 억압구조와 더불어 남성성에 대한 억압구조와도 결부시켜, 젠더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더버빌가(家)의 테스』에 나타난 공동체적 삶의 영역은 당대의 배타적인 계급적 가치와 성 이데올로기, 종교, 결혼, 섹슈얼리티 그리고 젠더로 인한 폐쇄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항상 무력하고 착취 받으며 성적으로 억압받는 그룹으로 가설화된다”(Mohanty 200). 여성은 ‘부재’, ‘부정성’, ‘열등성’으로 인한 ‘주변화 된 타자’로서 피식민적 존재이자, 소외된 하위주체이다. 한편 『비운의 주드』에서는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억눌리는 허약하고 무력한 하위주체로 전도 된다.³ 이 두 작품을 바바(Bhabha, Homi K)와 스피박(Spivak, Gayatri C)의 서벌턴 이론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근거로, 바바는 하위주체 개념을 인간 자아의 타자성에 초점을 맞추는 ‘양가적’(ambivalent) 동일시에 주목하여 “자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화 되어가고, 이러한 정체화 과정이 일어나는 장소는 항상 요구와 욕망의 긴장에 사로잡힌 분열이 일어나는 공간”(117)이라는 조건을 제시한다. 바바는 이 공간을 “틈새 영역”(in-between space)이라 부르며 중요하게 다룬다.

스피박은 “젠더의 문제는 남녀평등의 틀 속에서 계급과 연계시키는 자

³ 이에 대해 네일(Neill)은 주드는 “전형적인 ‘회전효과’(torque-like) effect)로 가득 찬 소설”로서 “하디 소설의 역사가 엇갈리게 되었다”(‘Hardy-in history’ effect is crossed)고 평한다(107).

본주의 억압과 가부장제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므로 탈식민 담론에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은 바로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주체 개념의 생산”(271)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시각은 기존의 가부장제의 편협성, 획일성을 극복하는 힘이 되며, 그동안 남성/여성으로 고수하던 이분화 된 주체 개념은 이제는 젠더에 의해 새로운 형태의 주체성을 생산하게 된다.

이상의 이론을 바탕으로 『더버빌가(家)의 테스』의 여성 주인공 테스와 『비운의 주드』의 남성 주인공 주드에 관한 서벌틴 분석을 통해 이들의 행적이 당대의 인습, 제도, 종교적 전통 등과 연관되면서 가부장제/기독교 문화/중산 지주계급으로부터 어떻게 성적으로 억압받는 하위주체로 나타나는지 그 갈등 국면을 추적해 봄으로써 당대의 사회에서 비가시화 되고 은폐된 사회체제와 하위주체를 새롭게 조망해 보고자 한다. 하위주체는 남녀의 차이와 젠더의 평등을 기반으로 현대 사회적인 맥락에서 새로이 정의되어야 하고 이를 상호보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II. 『더버빌가(家)의 테스』: 여성 서벌틴, ‘테스’

당대의 남성 중심적 담론 세계에서 테스(Tess)는 두 남성, 신흥지주 알렉(Alec)과 이상주의자 에인젤(Angel)과의 삼각사랑을 통해서 이 두 인물의 여성에 대한 상반된 편력에 농락당하며 파멸과 죽음에 이르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테스는 못 남성의 시선을 한 눈에 사로잡을 정도로 “정열적이고 순수하여 남자를 유혹하기에 충분한 이중적인 모습”(Carpenter 135)이다. 그녀는 말로트(Marlott) 마을, “오후의 ‘5월 무도회’(May-Day Dance)”(10)4에 “빨

4 이하 『더버빌가(家)의 테스』(*Tess of the D'Urbervilles*, 1891)의 본문 내용의 인용은 Harper Collins Publishers(2010)에 의하며 겹 따옴표와 함께 괄호 속 에 페이지만 표기한다.

간 색 리본을 머리에 달고 행렬속의 예쁘고 잘 생긴 젊은 처녀”(12)로 나타난다. 그녀의 외모는 호색가인 알렉의 유혹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테스가 장차 알렉의 성적인 힘에 의해 농락당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 한다”(Lucas 180, 김미경 43 재인용). 버틀러(Butler, Lance)는 담배를 물고 있는 음흉한 알렉을 가리켜 “테스를 유혹하여 타락시키는 사탄”(100)으로 지적한다. 알렉은 “눈동자가 뱅뱅 도는 대담한 눈에는 이상야릇한 힘”(42)을 지닌 자로 묘사되는 신홍지주로서 당대 가부장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테스를 지배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에 테스는 여성이라는 성차별 외에도 계급차별이라는 이중적인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수동적으로 알렉에게 이끌려 갈 수 밖에 없는 하위주체가 된다.

테스는 알렉이 주는 ‘영국 여왕’(British Queen)(44)이라는 잘 익은 딸기를 내 손으로 먹는다고 하면서도 입을 벌리며 받아먹는다. 테스의 이러한 태도는 알렉의 성적 욕망을 허용하는 빌미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테스는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남성의 성적인 소유물로 전락되어 알렉의 의도대로 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모습의 상징이 된다. 테스 자신도 앞으로 성욕의 대상이 될 거라고 막연하게 의식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치유될 성격적 결함”(45)으로 받아들인다. 이에 대해 크래머(Kramer, Dale)는 테스의 비극적 운명은 그녀가 지닌 성적인 매력으로부터 나오는 “성격상의 비극”(136)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부멜라(Boumelha, Penny)는 “자신의 성적 매력을 이용하려는 의도 보다는, 테스의 성적 매력 자체가 너무 도발적이어서 비극적인 운명을 지니게 된다”(125)고 하여 하위주체로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점을 인정하였다.

방탕한 알렉은 테스가 가만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의기양양하게 “정복의 키스”(61)를 하며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려 한다. 테스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은 무시당한 채 그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이는 당대의 남성중심 사회에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성적 유혹자와 피해자의 모습이다. 남성 중심사회에서 여성은 성적으로 순응해야하는

수동적인 하위주체로 규정되기 때문에 알렉은 성에 대한 테스의 부정적인 무표현을 성적인 허용의 의사표시이자 간접적인 동의로 받아들인다. 하디 자신도 이에 대하여 “여자의 부정적인 대답은 긍정적 대답의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다”(209)고 지적하고 있다. 당대의 기독교적 도덕관에 근거한 전통적인 성 윤리가 여성의 순결을 강요해 왔고 순결이 오히려 여성을 성적 죄의식에 짓눌리게 하는 의식적인 기제로 작용하여 “테스에게는 비극으로 다가오는”(216) 하위주체의 모습을 예견하게 한다. 하지만 테스가 “손수건을 꺼내서 알렉의 입술이 닿은 뺨을 닦는”(61) 모습은, 성의 이중적인 잣대와 여성에 대한 부당한 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당대의 잘못된 규범들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자신만의 주체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탈식민 여성 하위주체의 면모이다.

테스는 9월의 축제 어느 토요일, 마침 정기 장날이 겹치는 날에 체이스버러(Chaseborough) 장(場)에 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게 된다. 이날 밤 테스는 알렉에 의해 짙은 안개가 깔려있는 체이스(Chase) 숲으로 이끌리어 순결을 빼앗기게 된다. 테스가 알렉에게 순결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해 하디는 “어째서 이 아름다운 여자의 몸에 운명처럼 추한 무늬가 박히게 되었는가?”(86)라고 반문하며 성적으로 남성은 지배자이며 여성은 피지배자로서 억압받는 하위주체로서의 운명임을 개탄한다. 또한 하디는 “추잡한 남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차지하는 일이 허다한 것”(86)은 과연 무슨 까닭인지 설명을 하지 못한다고 말함으로써 남성의 경우, 성적 경험에 대하여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능동적 탐욕이 허용되는 반면에 여성은 수동적으로 당하고 나서도 자신이 행동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당대 현실의 불합리한 상황과 불평등한 성 이데올로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테스는 그런 일이 있은 뒤에도 알렉의 집에 두세 주일이나 더 머무르게 된 이유에 대해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아보아야 했고 가족의 생계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압박감 때문에 잠시 “내 눈이 멀어

서”(93) 여기에 온 것뿐이라는 말로 자신의 처지를 변명한다. 테스는 알렉과의 첫 경험 이후에 자신의 여성성에 대해 “이토록 이런 약점을 지닌 나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93)라고 말하는데 이는 자존감의 열등의식으로 여성이 자기 스스로를 하위주체로 인식할 때 갖게 되는 자기비하 정서이다. 테스는 경제적인 도움을 이유로 계속해서 접근해 오는 알렉에게 “당신의 노리개 감”(94)이 되길 단호하게 거부한다. 이것은 바로 테스가 “그 전의 빅토리아 여주인공과 달리, ‘성적인 측면과 남성적 독립성 및 힘을 결합한 새로운 여성’(Chattopadhyay 27)”(조애리 & 김진옥 246)으로서 주변부 하위주체가 남성 사회의 중심부로 진입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테스가 알렉의 노리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점을 두고 에버라인(Evelyn, Hardy)은 “여성의 해방을 위해 하나의 작은 불빛이 되고자 하는 하디의 사상을 나타내는 것”(237)이라 하였다.

테스는 “알렉을 더 이상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거라며”(95) 알렉과 결혼할 마음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테스는 알렉이 베푸는 호의에 그만 현혹되어 실수로 넘어갔었던 한 순간이 있었음을 스스로 시인하지만 테스는 자신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해 알렉의 유혹을 뿌리치고 임신한 몸으로 고향에 돌아온다. 테스가 알렉과 결혼하여 계급 상승을 시도하거나 경제적인 의존을 시도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높이 살만한 독립적인 자기주체의식의 발로이다.

테스는 알렉의 집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을 벽과 대문 디딤대 곳곳에 쓰여 있는 “저희, 저주는, 잊혀지지, 아니 하느니라”(96)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 글은 무섭고, 마치 사람을 짓밟아 죽이려는 것 같다”(97)고 생각하는데 이는 테스가 성적으로 유린당한 마음의 상처에 대한 죄의식과 절망감이 내면에 깊이 잠재하여 있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테스는 “하느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는 믿지 않는다”(97)고 하면서 그 글의 의미를 거부한다. 이에 대해 아우어바흐(Auerbach, Nina)는 빅토리아조의 타락한 여인을 논하면서 “타락한 여성은 고통 받고 죽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을 타락한

여인으로 일반화시키기를 거부한다”(34-35, 40-46 참조)고 언급한다. 테스는 당대의 도덕 기준으로 볼 때 타락한 여인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테스가 “타락한 여인으로 보일지라도 자신의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스스로 타락한 여인의 속성을 벗어 던진 뒤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고 성찰하는 힘”(Auerbach 171)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죄의식과 절망감을 주체적으로 극복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려는 모습이다.

순결을 잃은 테스에게 “결혼하려고 집에 돌아왔구나”(98)라는 어머니의 말을 통해서 테스의 행위에 따르는 책임이 수반되어야 했던 당대 사회의 결혼관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결혼관에서도 테스는 알렉을 경멸하며 그를 “티끌과 재같은 존재”(99)로 바라본다. 테스의 단호한 결심은 당시 중산 계급의 기득권과 사회체제 유지를 위해서 “처녀성을 강조하며 여성의 성적 행동을 통제하려 하는”(Stave 107) 기독교 문화의 성 기준에 반기를 드는 주체적인 탈식민 여성의 면모이다.

테스는 여성의 순결을 중시하는 당대의 사회에서 미혼모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면서도 알렉의 아이를 낳는다. 테스는 그럼에도 삶에 대한 강인한 의지로 가족의 생계와 알렉의 아이를 돌보면서 추수기에 들판으로 일하러 나간다. 테스에게 과거는 단지 흘러간 상처일 뿐이고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만이 중요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들 소로우(Sorrow)는 정식 세례를 받지 못한 채 곧 병으로 죽게 된다. 테스가 마을 목사를 불러 세례를 베풀어 주도록 부탁하지만 양가집 딸이 사생아를 낳아 기른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반대로 테스는 아들에게 세례를 직접 내리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타락한 여인이라는 테스의 모습은 오히려 “여왕 같은 위엄”(113)을 보인다. 당시의 기독교적 윤리와 사회적 관습의 편협성을 뛰어 넘는 테스의 이러한 세례 행위는 하디가 테스로 하여금 기존의 기독교 문화에 저항하는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기독교 문화가 규정하는 타락한 여인의 죄의식을 극복하고 테스 자신만의 삶의 가능성을 추구하려는 탈식민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테스는 이렇게

나름의 독자적 삶을 향해 남성과 대등한 독립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술한 시련에도 굽히지 않는 굳센 성격의 여성”(118)으로 변해 간다. 테스의 이러한 모습은 탈식민 여성 하위주체로서의 삶의 강인한 노력의 일면이다.

테스의 순결은 기독교 문화가 기반이 된 당대의 사회적 관습과 대립적으로 설정되지만 마냥 짓눌려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테스의 처녀성은 자연의 순리와 법칙의 영역으로 다루어진다. 하디는 테스의 입을 통하여 “한번 잃으면 영원히 잃어버린다는 말은 순결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말인가?”(118)라는 질문에 대하여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연의 재생 과정에 비유하여 응당 “재생의 힘”(119)이 있는 것으로 답한다. 테스의 성은 자연의 생명력과 연관되면서 “생명이 있는 것에는 어디에서나 즐거움을 맛보고 싶어”(126) 하는 “자발적인 욕망”(126)으로서 시간이 흐르면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하디는 이에 대해 알렉에게서 성적으로 억눌린 테스의 삶은 자연의 재생력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강조한다.

테스가 새롭게 태어나는데 가장 적합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곳은 탈보세이즈(Talbothays)(140) 목장이다. 탈보세이즈는 “실제의 지리적 장소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실존적인 심지어 시간적 영역”(Yi 249)으로 이어진다. 테스에게는 안정과 풍요의 장소로서 노동을 통한 조화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테스는 이러한 평온한 목장에서 젓소 짜는 일을 하다가 에인젤을 만나게 된다. 테스는 “낮은 하프에서 나오는 가냘픈 가락에도 가슴이 설레 일”(147) 정도로 하프를 켜는 에인젤에게 점점 이끌려 간다. 테스의 사랑은 탈보세이즈의 자연과 더불어 “해가 뜨면서 솟아나는 햇살이 새싹들을 돌아나게”(153)하는 것처럼 새롭게 피어난다. 두 남녀는 불타오르는 정열의 함정에 빠질 듯 말듯 “한 골짜기를 흐르는 두 물줄기처럼 막을 길 없는 법칙에 따라”(153)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러나 순결을 빼앗겼던 테스의 이런 모습은 당시대의 기독교 문화가 강조하

는 사회의 기준과 관습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 여기서 하디는 당대 문화와 자연과의 관점을 대조시키면서 여성의 성도 자연의 순리와 법칙으로 설명한다. 이에 대해 웨인스타인(Weinstein, Philip)은 “처녀성의 본질적인 문제는 환경과 심리상태에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108-109).

테스와 에인젤과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것으로 둘은 마치 낙원의 “아담과 이브”(155) 같았다. 에인젤에 대한 테스의 사랑은 더없이 높고 순수하여 과거의 아픔과 수치를 잊게 해 준다. 에인젤은 신사의 신분을 버리고 대학 교육까지 포기한 인물이다. 그는 교회 목사의 아들이지만 탈보세이즈 농촌 생활을 통하여 자연이나 인간에 대해 진보적인 관점을 수용한다. 그리하여 그는 농촌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농부가 되고 싶어 한다. 테스의 눈에 그는 완벽한 남성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는 이상적이고 “지성의 표본”(150)이었다. 테스에게 에인젤은 “선(善)자체였으며 안내자, 철학자, 그리고 지성의 선각자”(231)였다.

테스는 비로소 에인젤과 새롭고 참된 사랑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대와 달리 알렉과 마찬가지로 에인젤 역시 기독교 문화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당대의 다른 중산층 남성들처럼 아내로서 복종하고 순결한 미덕을 갖춘 여성을 원한다. 즉 테스를 자신의 이러한 틀에 맞는 여성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에인젤은 기독교를 비판하고 사회적 인습과 가치체계에 구속을 받지 않는 진보적인 성향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당대의 중산층 남성들이 지닌 여성관에서 벗어나지 못한 관습적인 인물이다.

테스는 에인젤에게 “달의 여신”(Artemis), ‘풍요의 여신’(Demeter) 등의 여러 환상적인 이름”(155)으로 기독교 문화에서 요구되는 이상적인 여성으로 보인다. 어느덧 테스와 에인젤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무르익어 두 사람은 웰브리지(Wellbridge)로 신혼여행을 가게 된다. 첫 날 밤에 테스는 알렉과의 과거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에인젤은 “아, 테스, 이런 경우는 용서가 통하지 않아요.”(274)라고 하며 거절한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당대의 여성의 사회적 도덕 기준이 기독교 문화의 남성중심주의

성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것으로 에인젤 역시 테스와의 사랑의 관념은 알렉과 다르지 않은 이중적인 성 이데올로기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해 하우(Howe, Irving)는 “알렉은 테스를 육체적으로 유린하고, 에인젤은 정신적으로 유린하고 있다”(112)고 말함으로써 당대가 만들어 낸 두 남성에 의해서 차별과 억압받는 여성 하위주체의 모습임을 지적한다. 테스는 자신의 곁을 떠나려는 에인젤에게 “비천한 노예처럼 무엇이든 하겠어요”(276)라고 하며 매달린다. 이 말은 남성중심 사회에서 테스가 수동적인 희생자로서 처절하게 자신을 피식민 하위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당대의 남성위주의 가치관에 계속해서 예속될 수밖에 없는 식민 상황을 반영한다.

테스는 에인젤이 반드시 자기를 데리러 와 “재결합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341)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험난한 현실을 극복해 나간다. 그러나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테스에게 복음 전도사가 된 첫 남편 알렉이 또 다시 나타난다. 테스는 의식적으로는 그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지만 한때나마 자신과 육신을 섞었던 알렉을 쉽게 내칠 수 없음을 느끼게 된다. 테스는 궁지에 내몰린 경제적 궁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렉의 유혹에 다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지만 그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고자 테스는 에인젤에게 “나에게는 자기 말고는 아무도 없다”(398)고 말하며 “모든 것으로부터 날 구해주세요!”(399)라는 구원을 청하는 편지를 보내게 된다. 테스의 이런 말은 여성 하위주체로서의 무력함과 이를 벗어나려는 탈식민 여성 하위주체로서의 모습을 동시에 보이는 양면성을 지닌 절규의 표현으로 보인다.

테스는 그렇게 그리던 에인젤과 재회를 하였음에도 그에게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테스는 에인젤과 소중하고 순수한 정신적 사랑을 나눌 수 없는 야속하고 기구한 자신의 운명에 대해 견딜 수 없는 절망감을 토로한다. 테스는 알렉의 계략에 의해 두 번씩이나 에인젤을 잃어야 했고 그와의 사랑마저도 잃어야 했다. 테스는 알렉에 대하여 믿었던 만큼 실망이

켰고 실망이 컸던 만큼 분노도 컸다. 테스는 더 이상 “난 전될 수가 없다”(452)고 절규하며 자신의 육체와 정신과 믿음을 짓밟은 알렉을 살해하기에 이른다.

이젠 충분히 행복을 누렸어요. 자기가 날 경멸 하는 날 까지 오래 살지 않게 되었어요!”

그녀가 일어나 몸을 턴 다음 앞으로 걸어갔으나 그들 중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 준비 되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469)

테스는 알렉을 죽임으로써 그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자신도 처형당해야 했기 때문에 “나, 준비 되었어요”라고 말하며 기꺼이 세상과 결별 할 준비를 한다. 테스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야 자신만의 사랑을 성취했고 아울러 자신의 행위에 떳떳이 책임을 지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보여주는 것으로 단지 힘없는 희생자로서의 여성 하위주체의 모습만은 아니다. 웨인스테인은 테스의 죽음은 “하디 작품에서 자기 성찰과 진정한 화해”(1984, 117)라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테스의 처형을 알리는 나부끼는 “검은 깃발”(472)은 여성의 성적 성찰을 통한 화해와 갈망을 의미하는 징표의 깃발이라고 할 수 있다.

하디는 당대의 고달픈 현실을 곳곳이 헤쳐 나가는 억압받는 하위 계층인 ‘노동 계급 여성’ 테스를 마지막 순간에 제단 위에 바침으로써, 비로소 한 시골 처녀가 당대의 남성 담론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테스 자신만의 사랑의 빛을 세상에 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테너(Tanner, Tony)는 “테스는 어두움의 형상이 퍼져있는 현실에서 밝은 세계로 나오고 있다”(22)고 언급한다. 테스는 이제 더 이상 “당대의 사회적 전환기의 희생자 또한 두 남성 알렉과 에인젤의 희생자”(Miller 81)도 아니다. 이는 당대의 남성 담론인 성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는 것이 되며 기존의 기독교적 성 담론에 의한 결혼은 남성에게 의한 여성의 종

속화와 식민지화 된 억압 기제로서 마땅히 파기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에 인젤이 처제, 라이자 루(Liza-Lu)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인 채 서로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힘든 고갯길을 서둘러”(470) “가던 길을 다시 계속 올라가는”(472) 그 길은 전지구적 탈식민 여성 하위주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책무가 얼마나 험난하고 먼 길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III. 『비운의 주드』: 남성 서벌턴, ‘주드’

『비운의 주드』에서 주드(Jude)는 자신의 이상적인 생각과 도시사회의 현실적인 관습에 연이어 부딪히게 되면서 당대 사회의 냉혹한 체제와 더불어 여주인공인 아라벨라(Arabella)와 수(Sue)에 의해 휘둘러가는 타자로 그려지고 있다. 주드는 “세 가지 면에서 억압받는”(Introduction xxi) 약자로서 “한편은 자기 자신의 욕망과 감정 사이, 다른 한편은 육체와 정신 사이, 또 다른 한편은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짓눌려 있는 인물이다”(Weinstein 131). 주드는 아라벨라와 수로 인하여, 거듭되는 좌절과 처절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비운의 남성 하위주체로 분석되는 측면이 있음을 여러 비평가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살디버(Saldiver, Ramon)는 억압받는 하위주체로서 주드가 겪고 있는 좌절감은 세 가지 실패 즉 하나는 “꿈의 실패이고, 또 하나는 결혼의 실패이며, 다른 하나는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실패”(110)라고 지적하였다, 버스테인(Burstein, Janet)은 “주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많은 것을 잃게 되며 비극적으로 전락하게 된다”(23)고 했고, 이글턴(Eagleton, Terry)은 “주드는 사회적 구조에서 점차 파멸되어가는 계층”(62)으로 보았으며 페이지(Page, Norman)는 “주드는 서로 상반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성적 충동이고, 다른 하나는 크라이스트민스터(Christminster)에 대한 환상에서 비롯된다”(72)고 말하였다.

주드는 야심을 품은 시골 출신 학자로서 크라이스트민스터에서 “나는 공부를 마치고 신학 박사가 될 거”(32)⁵라는 꿈을 지닌 순수하고 활력 넘치는 스무 살 젊은이었다. 이런 젊은이가 어느 날 잠시 길가에 앉아 있을 때 원초적인 성적 본능만을 추구하는 여인 아라벨라를 만난다. 아라벨라가 주드에게 던진 거세된 돼지의 성기가 “주드의 귀를 날카롭게 때리고 발에 떨어지는”(33) 그 첫 만남의 순간은 남성이 성적으로 여성의 노리개가 되는 상황과 다름없으며 아라벨라가 “환유적으로 주드를 강간하려는”(윤천기 210) 의도적인 행위와 같다. 곧 “주드는 아라벨라의 성적 욕망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며 이는 남성도 성적으로 하위주체가 되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다. 성적 희생자가 주로 여성이었던 빅토리아조 사회에서 남성을 성적 희생자로 삼은 것은 하디의 대담한 시도”(Casagrande 30, 윤천기 210 재인용)로 볼 수 있다.

주드는 육체적 사랑만을 추구하는 아라벨라를 만나게 되는 순간부터 학문의 열정을 상실하게 되면서 인생의 첫 불행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는 하위주체로 전락하게 된다. 이는 주드가 아라벨라를 처음 보면서 느낀 “마음속에 부글거리는 학문의 꿈을 방해한 장본인이 바로 이 여인”(34)이라고 한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주드가 “풍만한 젓가슴과 교묘하고 두툼한 입술로 부드럽고 통통한 뺨에 마술처럼 보조개를 짓는”(33) 아라벨라의 관능적인 매력에 빠져드는 것을 두고 로지(Lodge, David)는 “학문적인 야망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장애물은 아라벨라의 성적 유혹”(197)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아라벨라의 유혹은 주드로 하여금 학문적인 성취에 대한 꿈을 잊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관능에 의한 성적 쾌락감에 분별력마저 흐리게 만든다. 주드는 학문적으로 고귀한 정신적인 인생이 “엄청나게 역센 근육질의 힘을 가진 팔”(38)에 의해서 불길하고 저속한 나락으로

⁵ 이하 『비운의 주드』(*Jude the Obscure*, 1896)의 본문 내용의 인용은 Oxford University Press(2008)에 의하며 꺾 따옴표와 함께 괄호 속에 페이지만 표기한다.

떠밀려가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비극적인 방향으로 앞으로의 삶이 전개된다. 이는 주드가 아라벨라라는 여성에 의해 수동적으로 그녀의 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알리는 하위주체적 운명의 서막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 여인의 품에 사로잡힌 주드는 지금껏 교수나 학자가 되려는 꿈보다는 차라리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다. 주드는 시골 처녀 아라벨라의 거짓된 유혹에 빠져들면서 순간적으로 눈이 멀게 된 것이다. 아라벨라는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45)며 주드를 마치 성적인 사냥감인양 자신의 “남편감”(45)으로 만들려는 아라벨라의 적극적인 성적 의지가 담긴 표현은 당대의 성에 대한 주드의 수동적인 하위주체의 모습으로 남성중심의 성적 남성 담론에 대한 반기로 보인다.

아라벨라가 “움직이는 잎사귀 옆에 있는 초록색과 노랑색 썩기 벌레를 가리키며 주드를 자신의 곁으로 당기는”(47-48) 장면이나, “달걀을 자기 가슴에 넣었다 꺼내 보이고”(50) 자기를 끌어안아주기를 바라며 주드를 성적으로 계속 자극하는 장면은 주드가 아라벨라의 성적인 노리개가 되는 상황이다. 이는 당대의 남성중심의 능동적인 성 담론이 여성중심의 능동적인 성 담론으로서 전치되었음을 의미한다. 주드가 아라벨라를 만난 지 2개월 만에 그녀와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생각하지만, 아라벨라는 “아직 자기한테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51)라고하며 ‘임신이라는 무기’와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거짓 증언을 한다. 아라벨라는 “한 남자와의 결혼 생활은 훨씬 더 비즈니스 적이며 돈 문제를 보다 중요”(259)하게 여기는 여성이어서 주드와의 결혼을 성적 욕망과 부의 획득을 보장해 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위한 전략으로 “거짓 임신”(54)이라는 무기를 생각해 낸 것이다. 주드라는 남성의 성은 오히려 여성의 성에 대하여 미끼가 되어 사회적 약점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주드가 아라벨라의 “이 중 속임수”(54)로 농락당하는 것은 식민 주체와 농락당하게 되는 피식민 주체로서의 식민 상황이 되며 주드는 여성 타자에 의해 치절하게 파멸되

어가는 남성 하위주체로서의 모습이다.

주드는 이렇게 아라벨라에게서 마음과 몸이 사로잡히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으로써 아라벨라와 불행한 결혼을 하게 된다. 주드는 성적 본능으로 인한 “한 순간의 불장난”(61)이 약점이 되어 결혼의 뒷에 씌워 발목이 잡힐 정도로 자신이 크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변뇌하며 “당대의 결혼 제도가 온당치 못함”(56)을 깨닫는다. 이는 당대의 젠더의 불평등에 대한 주드의 깨달음인 동시에 하디 자신의 깨달음일 수도 있다.

남성의 성적 본능 때문에 학문의 열망을 포기한 주드와, 단지 성적이고 경제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아라벨라의 인생에서 비극적인 요인이 공유된다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둘은 정신적인 공감대도 없고, 애정도 없이 다만 법적으로만 외형적인 부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결혼식 날 아라벨라에게 선물로 준 주드 자신의 사진들이 “경매 물건 속에 그냥 버려진 것”(67)은 애정이 완전히 죽었다는 말없는 반증이다.

더욱이 주드와 아라벨라는 엄연한 부부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라벨라는 다른 남자 카틀렛(Cartlett)과 동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라벨라는 주드와 잠자리를 같이하는 행위로 보아 아라벨라에게서는 성의 윤리 의식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이처럼 불륜 범죄를 전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라벨라에게 있어 주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의 획득과 성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적 수단에 불과한 대상이 되며 아라벨라에게 농락당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점차로 비극적인 하위주체로 변모되어 간다.

주드가 타자화 되어 농락당하는 사건은 그의 아들 리틀 파더 타임(Little Father Time)이 이복동생을 죽이고 자살한 사건인 “석공 아이들의 이상한 자살 사건”(344)에서 정점화 되고 있다. 아라벨라는 심지어 주드가 몸져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젊은 남자를 잡을 수 없으면 늙은 사람이라도 상관없어.”(390)라고 하며 아래층에서 빌버트(Vilbert)와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이나, 주드에게 축제에 가자고 찾아온 마을 노동자와의 대화에서 남편이 잠을 자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며 다른 남자와 함께 “조정 경기 구

경을 가보고 싶네요.”(393)라고 하는 아라벨라가 보여준 불순한 언행과 태도에서 주드의 소외는 더욱 비극적으로 잘 나타나 있다. 주드의 죽음에 대해서도 “아주 푹 잠이 들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394)라고 하며 주드에 대해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슬퍼하는 기색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주드는 “좌절과 환멸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비극적 하강 곡선”(윤천기 236)의 주인공으로서 임종을 앞 둔 종말까지 아라벨라에게서 더욱 소외되어 처절한 하위주체가 되어가고 있다.

어느 날 주드는 크라이스트민스터의 교회용 상품을 판매하는 가게를 가게 되고 거기서 “현대 여성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금빛 후광에 싸인 이념적인 상의 모습”(72)으로 “책상 뒤에 앉아 있는 수의 모습을 보게 된다.”(82) 주드는 시골 태생이지만 학문과 정치, 경제의 도시인 런던에서 처녀 시절을 보낸 또 다른 여 주인공 수를 보는 순간부터 “자기의 가슴속에 간혀있던 고독감과 시로 승화된 크라이스트민스터에 대한 사랑이 자신도 모르게 이 환상의 여인에게로 빠져들었다.”(84) 이러한 수에 대한 정신적 갈등과 미묘한 감정은 “역경을 다시 반복한다는 것을 뜻하며 비극적 슬픔이 비극적 공포로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의미”(84)하는 것이다. 이는 여성에 의해 두 번씩이나 거듭 비극의 주인공으로 타자화 되어가는 하위주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주드는 “아내가 있는 내가 그녀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돼!”(86)라고 하며 괴로워하면서도 수에게로만 향하고 있는 것은 수에 대한 간절한 연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하는 유약한 주드의 하위주체 모습이다. 주드에게 수는 “우아하고 신비로운 이상적인 존재”(92)이며 육체적으로도 사랑하고 싶은 존재이다. 주드는 이런 행위가 “불륜이 된다.”(92)는 사실 때문에 심적으로 괴로워하면서도 수와의 계속된 일련의 만남은 주드에게는 장차 제 2의 비극의 씨앗이 되며 두 번째로 비극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어느 날 주드는 자기에게 찾아온 수에게서 “난 마치 남성인 것처럼 여러 남성들과 잘 어울려 다녔어요. 그들과 같은 성으로 말이에요.”(141)라

고 말하는 당대의 남성관에 대한 생각을 듣게 된다. 수의 이러한 신(新) 여성적인 면모는 기존의 가족이나 결혼에 대한 개념을 신질서화 하는 것으로서 당대의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거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남성의 성적 섹슈얼리티는 수동적으로 족쇄에 매이게 되는 단초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주드와 수가 플랫폼에서 함께 나누는 대화에서 “나를 좋아하기만 하세요. 그 이상은 안돼요!”(149)라는 수의 말과 “나를 사랑하기를 바란다면 오빠, 마음대로 하세요.”(149)라고 쓴 편지에서도 주드는 끌려가야만 하는 수동적인 하위주체적인 성 의식을 살펴 볼 수 있다.

주드는 수와 잠시 함께 삶을 꾸려 나가지만 여러 식구가 딸린 방을 구해야 하기에 현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게 되며 이는 주드에게는 삶의 무게와 고통으로 작용한다. 또한 주드와 수가 외출한 사이에 수가 낳은 아이 둘이 죽고 리틀 파더 타임 자신도 자살을 한다. 이렇게 주드는 “온통 걱정이고 역경이고 고통 뿐!”(322)이라는 비참한 가정생활을 꾸려가는 불행한 가정이다. “꿈과 같은 낙원 속에서 사는 것처럼”(262) 살아 보려했던 주드의 삶은 가부장제의 산물인 리틀 파더 타임에 의해 더욱 죽음이라는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다. 주드는 아이들이 죽은 후 수가 자기를 떠나 스무 살이나 더 나이든 전 남편 필로트슨(Phillotson)으로 돌아갈 때, 주드가 수에게 하는 “수가 날 떠났어 - 떠났어!”(351)라는 말을 통해서 비참한 절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주드는 수의 결정에 일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하위주체의 모습으로 비참하게 타자화되어간다. 주드는 부부 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하고 필로트슨에게 돌아간 수에 대한 뜨거운 연민을 잊을 수 없어 역수같이 퍼붓고 있는 비를 맞으면서도 그녀를 찾아가는 주드의 모습은 나약한 남성 하위주체의 모습일 뿐이다.

유명한 경구인 “문자가 사람을 죽인다.”(376)는 표현은 강박관념의 세계가 고대 죽음의 문자로 은유되고 있으며 주드가 추구하는 라틴어와 그리

이스어 지식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체제에서도 수용될 수 없는 문자의 터널에 갇히게 만든다. 결국 학문의 영역에서까지도 주드는 남성 성의 고립에 갇히게 되며 나아가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하위주체의 모습으로 치닫게 된다.

주드가 크라이스트민스터에 대한 환상에 빠져 “그러나 나는 열심히 살 수 있어. 다행히 끈기는 나의 특기이거든!”(32)라고 말하는 구절은 단순한 자기 위안의 말에 불과하며 이는 당대 남성담론의 중심지인 대학으로부터 “장차 주드가 타자의 존재로 버려지는 상황이 오리라는 것을 연상시키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게 하는 과장되어 있는”(Draper 234) 구절인 동시에 스스로 남성 하위주체임을 자인하며 달래는 구절이다. 주드의 학문적 희생과 가부장적 회귀 자체와 리틀 파더 타임의 죽음이 족쇄가 되어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타자에 의해 다시 배타적 영역으로 갇히게 되는 타자의 몸이 되고 만다. 결국 당대의 가부장적 희생자가 주로 여성이었던 사회에서 남성을 희생자로 삼은 것이라 볼 수 있고 동시에 주드는 아라벨라와 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성 타자에 대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남성 하위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빅토리아 사회의 체면과 도덕주의 사회에서 이처럼 여성 주체에 대응하는 주드의 몸부림은 자신만의 참다운 삶을 향하는 과정으로 미완의 결과를 남겼다. 아라벨라는 다른 남성으로 계속 전이됨으로써 이성애적 섹슈얼리티의 환희를 맛보았고, 수 역시 억압 체제에 대한 저항의식을 계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이성애적 섹슈얼리티의 자유를 누린다. 이와는 반대로 주드에게 “이성애적 섹슈얼리티는 환희와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상실과 부재”(Duvey 53)로 제시되면서 주드는 “어둑어둑한 풍경 속을 헤치고 외로이 걸어가고 있는 나약한”(71) 수동적인 하위주체 모습으로 점철되어 갈 뿐이다. 주드는 아라벨라와 수의 남성을 훨씬 넘어서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애정 편력에 휘둘려 삶의 부재와 깊은 상처 급기야 죽음을 맞이하는 하위주체 모습으로만 남게 된다. 주드가

“우리 시대는 아직 우리의 사랑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깨어있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가 꿈꾸는 행복한 결혼 문화와 인습은 “50년”이 지난, 아니면 “백년이 지난”(276) 이후에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시절, 우리 시대는 아직 우리의 사랑을 수용하기엔 너무나 깨어있지 못했죠. -우리의 정신이 맑고, 진리에 대한 사랑이 겁을 모를 때 -우리의 생각은 50년을 앞선 것이어서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들이 부딪쳐 반작용을 초래했고 나에게서는 자포자기와 파멸을 불러왔어요!...”(388)

주드는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추구하며 미래에 대한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는 깨달음의 주체였다. 그렇지만 당대의 열악한 사회 문화적 체제 하에서 아라벨라와 수라는 여성들의 주체의식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주드의 주체의식도 그 만큼 비례하여 상대적으로 나약해 가는 하위주체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모습에서 주드는 두 여인의 서로 다른 남성 편력에서 깊은 좌절과 번민으로 서서히 하위주체로서 파멸되어 가야 했다. 하지만 주드의 파멸이 깊어지면 질수록 그 만큼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주드의 정체성은 더 자유롭게 구현되며 이는 주드의 신념을 끝까지 지지해 주는 “반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당대의 자본주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 주드의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되는 지를 반문하게 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I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더버빌가(家)의 테스』에서의 여주인공 테스는 줄거리 전체를 점유하는 중요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 의해 억압받는 하위주체 여인으로 일관되어 나타난다. 테스에 적용되는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젠더의 문제는 여성의 순결과 타락, 남성에게 대한

사랑과 증오, 자신에 대한 비하와 자존이라는 모순되고 상반된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테스를 하위주체로 만들었다. 한편 『비운의 주드』에서의 주인공 주드 역시 줄거리 전체를 이끄는 중요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드는 학자가 되겠다는 꿈에서 실패하고, 첫 번째 여인 아라벨라와 두 번째 여인 수에게서 남편으로도 실패하며 아이들의 아버지, 그리고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실패한다. 그의 인생 전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패와 불행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테스는 죽음을 통해 탈식민 여성 하위주체성을 회복하려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드도 죽음을 통해 탈식민 남성 하위주체성을 회복하려 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고 보겠다. 죽음까지의 테스와 주드의 삶을 통해서 볼 때, 진정한 여성의 정체성은 남성을 진정하게 이해할 때만이, 또한 진정한 남성의 정체성은 여성을 진정하게 이해할 때만이 가능하며 성 정체성에 관한 어느 한 쪽의 단가적 논의는 불가능하다. 즉 여성과 남성은 각기 상호작용에 의해 상대의 성을 깊이 이해하고 성의 '차이'가 아닌 '다름'을 동등하게 인정할 때만이 여성과 남성의 정체성이 확립된다는 성 정체성에 대한 보편적 진리와 성의 '조화'와 '상생'의 대명제를 일깨워 준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여성 하위주체 테스에 대(對)하여 남성 하위주체 주드의 상정은 동일한 맥락에서 양가적인 하위주체의 모습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들은 당대의 부정적인 비극적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현대의 긍정적이고 보편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거듭 재현 되어야 한다. 나아가 그들 주인공들의 삶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각 주체들에게 은폐되어 비가시화 된 젠더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시공을 초월한 진정한 인권의 문제를 드러내는 일은 하위주체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성의 정체성에 관한 인간의 깊은 성찰과 젠더의 양가적 평등을 위한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테스는 더 이상 남성에 의해 수동적으로 억압받는 식민 여성 하위주체가 아니라 여성성으로 인해 여성성의 가치를 회복시키려는 탈식민 여성

하위주체로서 ‘여성의 성적 성찰’을 위한 주인공이다. 마찬가지로 주드는 자본주의 가부장제의 틀 속에서 여성이라는 타자의 굴레와 억압에서 다시 타자된 타자로서 죽음을 통해 남성성의 가치를 회복시키려는 탈식민 남성 하위주체로서 ‘남성의 성적 성찰’을 위한 주인공이다.

젠더의 영역에 관한 탈식민 담론이 제기하는 중요한 요점은 기존 사회의 기저에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하고 양가적 평등성을 이룩하는 것이다. 아래에 놓여 억압받는 불행한 존재들의 삶에 대한 고통을 바르게 이해하고 애정 어린 사랑을 공유하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이러한 성찰은 당대의 사회적 인습과 제도의 모순으로 억압받아왔던 하위주체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함으로써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종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하디가 그려낸 여성 하위주체 테스와 남성 하위주체 주드는 좌절과 실패의 연속에서도 어둡고 슬픈 삶의 비극을 넘어 내일의 삶에 대한 희망과 행복을 믿고 있는 주체로서 인간에 대한 영원불멸한 진정한 사랑의 가치가 깃들여 있는 하위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인 용 문 헌

- Auerbach, Nina. *Women and Demon: The Life of a Victorian Myth*.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P, 1982. 34-36.
- Bhabha, Homi K. “Remembering Fanon: Self, Psyche and the Colonial Condition.”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New York: Columbia UP, 1994. 112-23.
- Boumelha, Penny. *Thomas Hardy and Women: Sexual Ideology and Narrative Form*. New Jersey: The Harvester P, 1982. 4-8.
- Bronfen, Elisabeth. “Pay as You Go: On the Exchange of Bodies and Signs.” *The Sense of Sex*. Ed. Margaret R. Higonnet Chicago: U of Illinois P, 1993. 66-86.
- Burstein, Janet. “The Journey beyond Myth in *Jude the Obscure*.”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499-516

- Butler, Lance. *Thomas Hardy*. New York: Cambridge UP, 1978.
- Carpenter, Richard C. *Thomas Hardy*. Boston: Twayne Publishers, 1964.
- Casagrande, Peter. "‘Something More to Be Said’: Hardy’s Creative Process and the Case of *Tess and Jude*." *New Perspectives on Thomas Hardy*. Ed. Charles P.C. Petit. London: Macmillan, 1994. 16-40
- Chang, Jung-hee. "Christian Culture and Sexuality in Thomas Hardy’s Novels." *British and American Novel* 7.2 (2000): 143-63.
[장정희. 「토마스 하디 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문화와 성」. 『근대 영미소설』. 7.2 (2000): 143-63]
- Chattopadhyay, Amrita. "Women in Victorian Society as Depicted in Thomas Hardy’s Novels."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Planning & Administration* 1 (2011): 23-28.
- Cho, Ai-lee & Kim, Jin-Ok. "Becoming-Woman and Nomadic Space: *Tess of the D’Urbervilles*."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67 (2017): 245-62.
[조애리 & 김진옥. 「여성-되기와 유목적 공간: 『테스』」. 『신영어영문학』 67 (2017): 245-62.]
- Draper, R . P., ed. *Hardy: The Tragic Novels*. London: Macmillan, 1991.
- Duvey, Madhu. *Black Women Novelists and the Nationalist Aesthetics*. Indiana UP, 1994.
- Eagleton, Terry. "The Limits of Art."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62-69.
- Evelyn, Hardy. *Thomas Hardy: A Critical Biography*. New York: St. Martin’s P, 1955.
- Hardy, Thomas. *Tess of the D’Urbervilles*. London: Harper Collins Publishers, 2010.
- _____. *Jude the Obscure*, ed. Patricia Ingham. Oxford: Oxford University P, 2008.
- Howe, Irving. *Thomas Hardy*. New York: Macmillan, 1967.
- Ingham, Patricia. *The Langle of Gender and Class: Transformation in the Victorian Novel*. London: Routledge, 1996. 160-82.
- Kim, Mi-kyung. *Postcolonial Feminism in Thomas Hardy’s Novels*. Ph.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Kunsan National University, 2008.
[김미경. 「토마스 하디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콜로니얼 페미니즘」. 군산대학

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8.]

- Kramer, Dale. *Critical Approaches to the Fiction of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79. 153-55.
- Lodge, David. "Jude the Obscure: Pessimism and Fictional Form." *Critical Approaches to the Fiction & Thomas Hardy*. Ed. Dale Kramer. London: Macmillian, 1979. 190-200.
- Lucas, John. *The Literature of Change: Studies in the 19th Century Provincial Novel*. Sussex, New York: Harvester P, Barnes & Noble, 1980.
- Michell, Juliet. *Psychoanalysis and Feminism*. New York: Vintage Books, 1975. 377-46.
- Miller, J. Hillis. *Tess of the D'Urbervilles: Repetition as Immanent Design.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 Mohanty, Chandra Talpade. "Under Western Eyes: Feminist Scholarship and Colonial Discourses."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New York: Columbia UP. 1994. 259-63.
- Neill, Edward. *The Secret Life of Thomas Hardy 'Retaliatory Fiction'*. Burlington: Ashgate Publishing Company, 2004.
- Page, Norman. "Vision and Blindness."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72.
- Saldiver, Ramon. "Jude the Obscure: Reading and the Spirit of the Law." *Modern Critical Interpretations*.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103-18.
- Spivak, Gayatri C. "Can the Subaltern Speak?" *Colonial Discourse and Post-Colonial Theory*. New York: Columbia UP, 1994. 24-28.
- Stave, Shirley A. *The Decline of the Goddess: Nature, Culture and Women in Thomas Hardy's Fiction*. Westport: Greenwood P, 1995.
- Tanner, Tony. *Colour and Movement in Hardy's Tess of the D'Urbervilles*.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 Yun, Cheon-gie. *A Study of Hardy's Novels*. Seoul: Eu Publishing, 2004. [윤천기. 『하디 소설의 연구』. 도서출판 이유, 2004.]
- Weinstein, Philip. M. *The Semantics of Desire: Changing Models of Identity From Dickens to Joyce*. Princeton: Princeton UP, 2014. 108-45.
- Yi, Hyang-Soon. "The Traveler as Messenger in Lady Gregory's *Kincora* and *Dervorgilla*."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63 (2016): 247-68.

토마스 하디의 소설에 나타난 포스트콜로니얼의 서벌턴: 97
『더버빌가(家)의 테스』와 『비운의 주드』를 중심으로

chaul1111@hanmail.net

논문접수일: 2020. 1. 12 / 수정완료일: 2020. 8. 20 / 게재확정일: 2020. 8. 25

